農家經濟의 動態的 變化와 「F-싸이클」 假說

崔 洋 夫
研究委員, Ph. D. (農業經濟學)
吳 乃 元
研究員, 所得開發室

Ⅰ. 問題의 提起
Ⅱ. 家族經濟로서 農家經濟와 「F-싸이클」
Ⅲ. 農家經濟의 動態的 變化
Ⅳ. 結論 및 政策的 含蓄

Ⅰ. 問題의 提起

1960~85년간 우리 나라의 農家戶數는 가장 많았던 해인 1967년을 기준으로 할 때 66만호가 절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농가호수의 감소는 〈表1〉에서와 같이 1ha 미만의 農家階層에서 비교적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그렇다고 規模階層別 農家構成比에 변화를 가져올 만큼의 큰 감소는 아니었다. 그것은 1ha 이상의 農家階層에서도 상대적으로는 비교적 큰 감소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農家戶數의 감소는 지난 25년간 거의 全 規模階層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온 一般現象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農家戶數의 감소에도 불

表 1 耕地規模別 農家戶數의 變動

단위 : 千戶, %

		0.5ha 미만	0.5 ~1.0	1.0 ~1.5	1.5 ~2.0	2.0ha 이상	總農家數
1960		815 (35.0)	837 (35.9)	399 (17.1)	163 (7.0)	114 (4.9)	2,329 (100.0)
1967		919 (35.5)	829 (32.0)	446 (17.2)	219 (8.5)	173 (6.7)	2,587 (100.0)
1980		641 (29.7)	748 (34.7)	439 (20.3)	191 (8.9)	139 (6.4)	2,158 (100.0)
1985		579 (30.1)	686 (35.6)	390 (20.2)	160 (8.3)	111 (5.8)	1,926 (100.0)
연평균 증감률	'60/67	1.7	△0.1	1.6	4.3	6.1	1.5
	'67/80	△2.7	△0.8	△0.1	△1.0	△1.7	△1.4
	'80/85	△2.0	△1.7	△2.3	△3.5	△4.4	△2.2
	'67/85	△2.5	△1.0	△0.7	△1.7	△2.4	△1.6

資料 : 農水産部, 「農業센서스」, 각년도, 1967년은 「農林統計年報」.

구하고 〈表2〉와 같이 平均的인 수준에서 戶當 耕地所有面積은 큰 變化가 없으며 오히려 規模階層別로 본 戶當 所有面積은 全階層에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戶當 耕作面積은 약간의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그것도 「全 規模階層의 일반적인 현상일 뿐 특정계층에서의 증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나라 農家의 農地所有 및 利用과 관련하여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表 2 耕地規模別 戶當 所有 및 耕作面積

단위 : ha

	0.5ha 미만		0.5~1.0ha		1.0~1.5ha		1.5~2.0ha		2.0ha 이상		平 均	
	所 有	耕 作	所 有	耕 作	所 有	耕 作	所 有	耕 作	所 有	耕 作	所 有	耕 作
1959	0.35	0.39	0.77	0.81	1.35(소유)		1.43(경작)		2.52	2.33	0.82	0.85
1967	0.27	0.34	0.60	0.73	0.98	1.21	1.50	1.75	2.27	2.59	0.81	0.97
1980	0.26	0.31	0.59	0.74	0.93	1.22	1.31	1.71	2.13	2.57	0.81	1.03
1985	0.24	0.31	0.54	0.76	0.85	1.25	1.20	1.73	1.83	2.64	0.80	1.15

資料 :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 각년도.

는 현상의 하나는 급속한 農地의 賃貸借化와 賃貸借農家의 증가이다. 1950년의 農地改革을 통하여 日帝下의 半封建的 地主—小作關係가 해체되고 耕者有田의 원칙에 입각한 自作農制가 확립되었지만 農地賃貸借는 꾸준히 증가하여 1985년 현재 總耕地의 30.5%인 65만4천ha가 賃貸借地化되어 왔다(金聖昊 1986, 12). 현재 진행되고 있는 賃貸借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農地賃貸가 耕地所有面積이 큰 農家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零細小農도 때에 따라 農地를 賃貸함으로써 전계층에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崔洋夫外 1983, 36), 賃貸人의 賃貸地 所有規模도 영세하여(金聖昊 1984, 163), 이러한 賃貸農家의 등장이 계급으로서의 地主層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農地의 賃貸借가 農家間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不在地主가 증가하고 있어 1985년 현재 전체 賃貸借面積의 63%인 41만3천ha가 非農民所有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農地賃貸借의 특징은 賃貸의 경우 大規模農家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零細地主, 不在地主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農地賃借도 그것이 일방적으로 小規模農家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전 규모계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農家戶數의 絕對的 減少와 동시에 급속한 農地의 賃貸借化 現象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현상은 어떤 相互因果的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農家戶數 감소에도 불구하고 耕地規模의 擴大가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論文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현재 農家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經濟現象인 耕地所有規模의 정체, 農地賃貸借와 不在地主의 증가 등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한 것이다.

특히 이 논문은 이상과 같은 경제현상에 작용하는 農家經濟의 內部 메카니즘의 이론적 설명이란 관점에서 「F-싸이클 假說」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F-싸이클」이란 「農家生涯週期(Farm Household Life Cycle)」란 개념을 약칭한 것이다.[1]

Ⅱ. 家族經濟로서 農家經濟와 「F-싸이클」

1. 家族經濟와 生涯週期

農業經濟現象에 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單位

[1] 「F-싸이클」 개념은 崔洋夫(1984; 1985, 68); 1986, 352—356)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이 논문은 「F-싸이클」의 개념을 하나의 理論假說로 체계화시킨 것이다.

表 3 韓國家族의 生涯週期

가족주기의 단계		각 단 계 의 특 징		가구주 연령
순 서	단 계 명	단 계 의 시 작	단 계 의 끝	
1	형성기	혼 인	첫자녀 출생	27~29
2	확장기	첫자녀 출생	최종자녀 출생	29~34
3	완전확장기	최종자녀 출생	첫자녀 집떠남 (혼인)	34~56
4	수축기	첫자녀 집떠남	최종자녀 집떠남	56~60
5	완전수축기	최종자녀 집떠남	부부중 1명 사망	60~67
6	해체기	부부중 1명 사망	나머지 부부 사망	67~

* 1945~49년 출생한 농촌부인의 경우임.
資料 : 姜熙涇外(1982, 53, 73).

인 農家經濟가 갖는 아주 평범한 사실의 하나는 그것이 「家族經濟」라는 점이다. 資本의 結合인 法人으로서의 企業과는 달리 自然人의 血緣的 結合體인 家族은 그 자체가 社會的 經濟活動, 예를 들면 生産, 消費, 資産蓄積, 投資 등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家族經濟(household economy)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 나라 農村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농가는 그와 같은 家族經濟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家族經濟는 어떠한 성격을 가진 經濟인가? 家族經濟를 지배하는 어떤 經濟原理는 없는 것인가? 특히 家族經濟의 動態的 變化에 관한 어떤 일반법칙은 없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家族經濟는 夫婦의 결합에 의한 家族의 形成과 함께 構成되며, 자녀의 출산과 성장, 分家 등 家族構成員의 變動에 따라 變化하고 夫婦의 사망으로 消滅한다.[2] 즉 가족경제의 내재적 원리로서 다음과 같은 명제를 생각할 수 있다.

命題 : 하나의 家族經濟는 家族의 形成, 成長과 變化, 消滅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일정한 生涯週期(life cycle)를 갖는다.

家族經濟는 생물적 자연인인 家口主에 부속하여 일정한 內的週期(internal cycle)를 가지고 변화하며, 이 점에서 獨自的 運動法則(資本蓄積과 擴大再生産)을 가지는 資本이 주체가 되는 企業經濟와 구별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나라의 경우 家族經濟는 어떠한 형태의 週期를 가지는가? 일반적으로 한국의 가족은 그 단순한 형태(基本型)로서 6단계의 週期를 가지고 生成, 變化한다. 각 단계의 명칭과 구분기준은 〈表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3]

家族經濟의 生涯週期에 따른 각 단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形成期는 家口主의 婚姻에 의해 새로운 家族이 창출된 시기이다. 이때 家族經濟는 부모세대로부터 비교적 小規模의 자산을 상속, 증여받음으로써 출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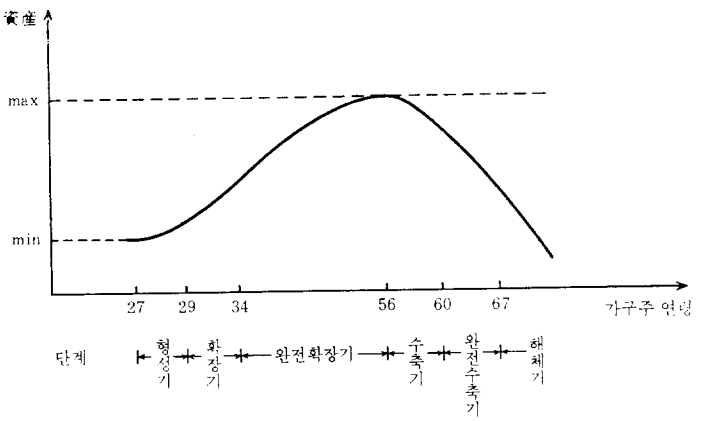
(2) 擴張期에는 자녀들의 출산으로 가족의 규모도 커지며 왕성한 勞動力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의 결과 어느 정도 資産의 蓄積이 이루어진다. 특히 完全擴張期의 후반에 이르면 성장한 자녀들도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家族經濟의 규모도 더욱 확대된다.

(3) 收縮期에는 子女들의 혼인에 따른 비용지출과 分家몫의 분배로 資産의 감소가 일어나고

[2] 물론 자녀에 의한 家族의 承繼와 함께 家族經濟도 승계되나 經濟主體로서 한 세대의 家族經濟는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단 〈表3〉과 같은 가족의 생애주기는 夫婦家族(核家族)의 경우이며, 直系家族은 이 부부가족의 승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 家族經濟의 生涯週期와 資産의 變化



勞動力의 流出, 家口主의 老齡化로 경제활동의 규모도 축소된다. 이때, 後繼者가 있으면 第2世代 家族의 生涯週期가 시작된다.

(4) 完全收縮期와 解體期에 있어서 가족의 經濟活動과 保有資産의 규모는 더욱 축소되고 마침내 夫婦의 사망으로 인한 家族經濟의 解體, 消滅로 결과된다. 이때 가족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資産은 다음 세대에 상속된다.

이상과 같이 家族經濟에 內在해 있는 生涯週期라는 命題로부터 가족경제의 資産의 動態的 變化에 대한 다음과 같은 理論的 假說을 생각할 수 있다.[4]

즉, 「家族經濟는 形成과 함께 일정량의 자산을 보유하며, 擴張期를 거치면서 자산을 蓄積해 가나, 收縮期를 지나면서 자산의 감소가 진행된다」. 이것을 바꾸어 표현한다면 모든 가족경제는 生涯週期를 가지고 있고(즉 生涯週期를 가지지 않는 가족경제란 없으며), 生涯週期에 따라 가족경제의 資産 增減變化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家族經濟의 生涯週期에 따른 資産增減을 일반화시켜 〈그림 1〉과 같이 假說的으로 나타낼 수 있다(崔洋夫 1986, 354).

家族經濟內에서 일어나는 生涯週期에 따른 資産變化는 가족경제에서 一次的인 意思決定權을 가지고 있는 家口主 또는 夫婦의 行動原理가 「家族安寧第一原則」에 따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5] 다시 말하면 家口員 전체의 社會的 成長과 定着, 健康, 安全, 幸福 등을 전제로 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 農家經濟와 「F-싸이클」

農家經濟는 전형적인 家族經濟로서[6] 앞에서 설명한 家族經濟의 일반적 성격을 갖는다. 즉 農家經濟도 家族의 生涯週期에 따른 일정한 週期를 가지며 生成, 成長, 衰退, 消滅의 변화과정

[4] 여기에서 이론적 가설이라고 한 것은 이 가설이 경험적 사실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5] 家族의 經濟活動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家族의 安寧과 發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行動原理는 企業經濟의 「利潤極大化의 法則」이나 個人消費者의 「效用極大化의 法則」에 대비될 수 있다. 스코트는 이를 「safety-first principle」이라고 부르고 있다(Scott 1976 ; 5).

[6] 農家를 家族經濟로서 파악하여 그 경제활동을 분석한 것은 차야노프(Chajanov, 1925)를 시초로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제 3 세계의 농가를 분석하는데 家族經濟의 개념을 도입한 연구들 (Scott 1976 ; Barnum 1979 ; Binswanger 1980) 뿐만 아니라 資本主義의 분석에 있어 家計(household)의 개념을 폭넓게 도입하려는 시도(Smith 1984)도 있다. 특히 차야노프는 농가경제에 가족주기가 있음을 설명하고 經營主 年齡에 따른 勞動力과 消費慾求, 耕地面積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을 겪는다. 이러한 農家生涯週期(Farm Household Life Cycle)를 본 논문에서는 약칭하여 「F-싸이클」이라고 부른다.

本論文에서 農家生涯週期를 「F-싸이클」이라고 별도로 부르는 것은 農家의 農業生産活動에 있어 기본적인 生産手段인 農地의 蓄積과 分配가 「F-싸이클」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 따라 새로운 農家가 創出, 消滅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Ⅲ章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農家經濟는 家族經濟와 같이 消費單位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農業生産活動單位라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農家經濟는 土地와 약간의 生産手段을 보유하는 自作的 性格을 갖는다.[7] 이때, 土地를 비롯한 生産手段은 勞動力과 함께 農家經濟의 가장 根幹을 이루고 있으나, 企業의 資本과 같은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家族의 安寧과 發展을 위한 生活手段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農家資産의 蓄積活動도 利潤極大化를 위한 投資活動과는 달리 家族經濟의 安定과 다음 세대의 發展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農家經濟도 家族經濟의 행동원리인 「家族安寧第一原則」을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男兒가 分家할 때에는 새로운 家族經濟의 기초로서 일정량의 農地를 배분함으로써 農家가 창출되며 기존 농가경제의 資産減少가 일어난다.

이와같이 농가는 家族의 安寧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며, 그 가장 중요한 生産手段인 農地도 이 원칙 아래에서 蓄積되고 分配됨으로써 「F-싸이클」에 따른 變化를 겪는다. 즉 農家經濟의 農地를 포함한 資産도 결국 〈그림 1〉과 같이 生涯週期에 따라 動態的인 增減變化를 겪는다.

Ⅲ. 農家經濟의 動態的 變化

1. 「F-싸이클」과 農家資産의 世代間 承繼

農家經濟를 지배하는 內的 메카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는 「F-싸이클」은 韓國의 農業에 어떤 현상을 일으켜 왔는가? 産業化過程에서 나타나고 있는 規模擴大의 정체, 賃貸借와 不在地主의 增加 등의 현상과 「F-싸이클」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F-싸이클」이 農家經濟의 動態的 變化에 작용하는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産業化 이전의 閉鎖模型, 즉 農耕社會에서의 「F-싸이클」의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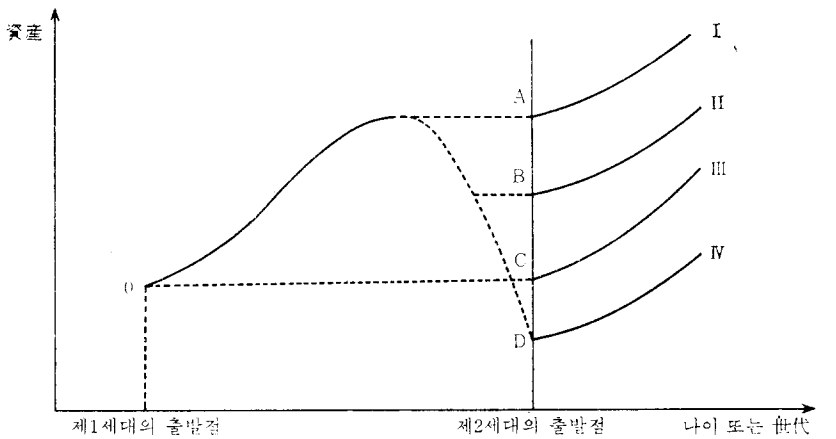
「F-싸이클」이 農家經濟의 動態的 變化에 대해서 갖는 첫번째 의미는 그것이 農家經濟의 資産蓄積, 예를 들면 規模의 擴大[8]를 제약하는 內在化된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産業化 이전의 農耕社會에 있어서 子女들은 대체로 마을 내에서 자라며, 교육받고 어느 정도 노동력을 갖게 되면 부모와 같이 營農에 참여하고, 결혼하여 새로운 農家를 創出하여 부모대를 승계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때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農業生産活動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農家의 經濟活動規模도 커지며 資産도 증가하는 「F-싸이클」상의 擴張段階를 가진다. 그러나, 자녀들이 분가하여 별도의 獨立家族을 이룸에 따라

[7] 물론 농가의 구체적인 土地保有는 역사적으로 그 형태를 달리하며, 近代的 土地私有制가 확립된 이후에도 地主, 小作農 등 自作農의 범주를 벗어나는 형태가 존재한다. 그러나, 직접적 생산자로서 농가의 自作的 性格은 그 理念型일 뿐만 아니라 歷史的, 空間的으로도 가장 광범위하게 지속되어온 형태로 볼 수 있다.

[8] 농가의 資産蓄積에 있어 대표적인 것은 土地資産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F-싸이클」에 의한 世代間의 資産承繼模型



生活手段으로서의 農地의 分割相續이 불가피하게 되며 이것은 새로운 農家의 創出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第1世代에서 蓄積된 農家資産은 다음 세대로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녀들의 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分割相續이라는 縮小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동태적으로 보았을 때 농가경제의 持續的인 資産蓄積은 제약을 받게 된다.

農家의 世代承繼過程에서 진행되는 蓄積된 資産의 分割相續을 정리하면 〈그림 2〉와 같이 4가지 형태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제2세대 「F-싸이클」의 출발점은 제1세대 자산의 극대점인 A부터 D까지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규모로 존재하게 된다. 이때 A에서 출발한 I型에 있어서는 2代에 걸친 資産의 持續的 蓄積이 성립되지만, Ⅳ型에서는 제2세대 출발시점의 자산규모가 오히려 제1세대보다 축소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제2세대 농가경제의 자산규모는 출발시점의 자산규모의 차이가 出發條件(initial condition)의 농가간 차이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F-싸이클」의 지배속에서 다시 擴張과 縮小라는 일반적인 과정을 반복한다.[9] 특히 제2세대 「F-싸이클」의 출발점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 하는 것은 家族의 人口的 要因 즉 子女數와 社會制度 및 慣習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예를들면 1子相續制나 長子相續制 또는 子女間 分割相續制 등이 그것이다. 〈그림 2〉의 I型은 農家資産을 한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이며 이때 농가자산은 持續的인 蓄積의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속에 관한 보편화된 사회적 관습과 제도는 I型보다는 Ⅱ, Ⅲ, Ⅳ型을 만들어 내는 分割相續制가 지배하여 왔다. 따라서 제1세대에서 축적된 농가의 자산은 제2세대로의 承繼過程에서 필연적으로 分割過程을 거침으로써 農家經濟의 지속적인 자산축적의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제약되지 않을 수 없다.

장기간에 걸쳐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農家經濟의 資産(土地) 所有規模의 정체현상도 결국은 「F-싸이클」의 지배를 크게 받은 결과의 하나라고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農家에 있어 지난 25년동안 戶當 耕地所有面積에 큰 변화가 없고, 資産蓄積에 의한 資本主

[9] 이 과정에서 I, Ⅱ型의 농가가 자산규모의 축소를 가져오고, Ⅲ, Ⅳ형의 농가가 오히려 자산규모가 커질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義的 企業農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零細小農이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어 온 內的 原因을 이 「F-싸이클」의 작용에서 찾을 수 있다. 農家經濟가 農業生産이라는 경제활동의 主體이면서도 企業經濟와 같이 지속적인 資本蓄積의 過程을 거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F-싸이클」의 지배하에 있는 家族經濟라는 사실 때문인 것이다.

더우기 離村의 가능성과 人口의 移動性이 크게 제약되어 있는 農耕社會와 같은 局地的인 閉鎖經濟에 있어서 새로 형성된 제2세대의 農家들은 부모세대로부터 土地등의 資産을 분할상속받아 독립가족을 이룸으로써 상대적으로 小規模에서 영농을 시작한다. 따라서, 농가경제의 「F-싸이클」은 零細小農을 구조적으로 再創出시키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한다(金春棟 1983).

2. 産業化에 따른 「F-싸이클」의 斷絕과 農家經濟의 動態的 變化

韓國의 農村과 農業 그리고 農家經濟는 1970년대의 급속한 産業化過程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崔洋夫, 吳乃元 1986, 21—30).

産業化가 農家經濟에 미친 가장 큰 영향중 하나는 都市·工業部門의 성장에 따른 農家子女들의 離農이다. 급속하게 확대되는 都市·工業部門은 성장에 필요한 勞動力의 供給源을 農村에서 구하기 때문이다. 農家의 젊은 자녀들은 工業部門에 취업하거나 혹은 그 전단계인 近代的 敎育을 받기 위해 農村을 떠난다. 이와 같이 농가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離村은 농가의 家族的 性格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결혼을 통하여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기 이전 단계에서 農家子女들의 離村은 부모와 자녀들간에 生活空間의 場所的 分離를 가져오고 그것은 「1家族 2家口」(崔洋夫 1986, 356—359), 또는 「1家族 多家口」(吳乃元外 1986, 43—49)라고 부를 수 있는 家族類型을 만들어 낸다.

자녀의 離村과 그에 따른 「1家族 多家口」 현상은 農家의 資産蓄積에 새로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農耕社會에서는 성장한 모든 자녀가 營農에 참여함으로써 擴張期에 있어서 農家資産의 增加가 가능하였지만, 産業化에 따른 敎育年數의 증가와 都市로의 離農으로 자녀의 영농참여가 감소하여 勞動力不足을 야기시키고, 敎育費負擔, 자녀의 都市定着 지원을 위한 資産의 유출로 「F-싸이클」에 따른 農家資産의 擴張에 제약이 가해진다.

다른 한편으로 農耕社會에서 農家는 대부분의 자녀가 農業을 職業으로 부모를 계승함으로써 農地承繼를 통한 農家의 創出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농가의 젊은 자녀들이 도시에서 가구를 형성하고 都市定着이 진행되면서, 農村에 남아있는 부모들의 老齡化에 따라 농업을 승계할 營農後繼者가 없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F-싸이클」의 世代間의 斷絕을 의미한다.

최근 農家戶數의 감소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老齡化와 子女離村에 따른 「F-싸이클」의 단절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大農層의 자녀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敎育機會를 가졌기 때문에, 零細農層의 자녀는 물려받을 농지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각각 農業을 떠나, 「F-싸이클」이 단절됨으로써 營農規模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農家戶數의 절대적인 자연 감소가 일어나는 것이다〈表1 참조〉. 다시 말하면 農家子女들의 離村과 都市定着은 농촌내에서 農家의 새로운 創出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며 農家의 집단적인 離農과 함께 農家戶數의 減

少를 더욱 촉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농가자녀들의 離村과 都市定着, 농촌에 남아있는 부모들의 老齡化의 급속한 진행, 그리고 그에 따른 「F-싸이클」의 斷絶이라는 현상은 결국 농촌의 부모(農家)가 보유하고 있는 農地를 非農業部門에 就業하여 都市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非農民)들이 분할상속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시 말하면 상속을 통한 非農民의 農地所有가 사회적으로 合法的으로 나타나게 된다. 1949년에 제정된 農地改革法과 현재의 農地去來制度에서 非農民의 農地所有와 購入은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非農民子女에의 상속, 증여는 民法上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농지를 상속받은 非農民子女가 그것을 팔지 않고 보유하거나, 혹은 팔려고 해도 在村農民의 購買力이 충분하지 못할 때, 不在地主로 되고 그에 따른 賃貸借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推論은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非農民地主의 農地取得 경위가 買入(농지투기등)에 의한 것보다 이농한 非農民子女에 대해 상속, 증여한 경우가 많고 이것이 총 賃貸借面積의 41.6%에 달하고 있는 사실로도 뒷받침될 수 있다.

表 4 賃貸地의 所有形態. 1985

단위 : 千ha, %

賃貸面積	國·公有地	農家所有	非農民所有	
			離農후 계속보유, 이농자녀에게 상속증여	非農民의 農地買入
654 (30.5)	15 (0.7)	226 (10.5)	272 (12.7)	141 (6.6)

* ( )안은 총경지면적에 대한 비율.
資料 : 金聖昊(1986, 12).

이상의 論議를 요약하면 農家經濟에 作用하고 있는 「F-싸이클」은 産業化의 진행에 따른 농가자녀들의 이촌과 도시정착으로 世代間에 斷絶되면서 農家戶數의 전계층적 減少, 非農民子女에의한 농지상속과 그에 따른 영세 不在地主의 증가, 農地賃貸借의 擴大라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농지를 상속받은 비농민자녀들의 農地保有選好 경향과 在村農民들의 실질적인 農地購買力의 부족은 농가호수의 절대적 감소 속에서도 호당 농지소유규모의 증대보다는 오히려 賃貸借地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다.

Ⅳ. 結論 및 政策的 含蓄

家族經濟로서 農家經濟가 갖는 구조적 성격의 하나는 農家經濟가 家族의 형성과 성장, 쇠퇴, 소멸에 따라 변화하는 「F-싸이클」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F-싸이클」에 따른 農家資産의 承繼模型과 産業化의 영향으로 인한 「F-싸이클」의 世代間 斷絶을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農地賃貸借와 不在地主의 增加, 農家戶數의 全階層的 減少, 農家의 지속적인 資産蓄積의 제약, 小農의 再創出 등의 諸現象이 올바로 이해될 수 있다. 農家經濟에 내재하고 있는 「F-싸이클」은 農家經濟를 企業經濟와 구분시키는 農業經濟原理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F-싸이클」 假說이 제시하는 政策的 意味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農家의 高齡化는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F-싸이클」상의 收縮期, 解體期에 접어든 農家가 많아 「F-싸이클」의 斷絶로 인한 農家戶數의 절대적 감소와, 「F-싸이클」과 分割相續制라는 社會制度가 일으키는 賃貸借, 不在地主의 증가가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表 5 農家經營主의 年齡別 構成比 變化

단위 : %

연 도	34세 이하	35~44	45~54	55세 이상
1960	23.0	27.0	26.0	24.0
1970	20.8	27.7	25.8	25.7
1980	13.1	25.1	26.0	32.7
1985	10.3	19.3	32.3	38.1

資料 : 農水産部, 「農業센서스」, 각년도.

둘째, 뿐만 아니라 「F-싸이클」은 構造的으로 農家資産의 世代間 承繼過程에서 分割相續에 의한 資産의 細分化와 零細化를 촉진시키며 동태적인 資産蓄積을 제약한다. 즉 家族經濟로서 農家經濟는 가장 기초적인 생산수단인 農地에 작용하는 「F-싸이클」의 지배로 小農的 零細性을 극복하기 어려운 내부적 메카니즘을 갖고 있다.

세째, 따라서 農家經濟가 세대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자산축적을 이루고 규모를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F-싸이클」에 의한 農家資産의 承繼過程을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社會制度의 개선 내지는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農家經濟의 動態的 成長을 이루기 위해서는 農地의 分割相續의 규제와 1子相續制의 法的 裝置, 그리고 非農民子女의 農地相續이나 保有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相續稅法이나 財産稅法 등의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在村農家들의 실질적인 農地購買力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長期低利 農地購入資金의 支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農地制度에 대한 개선은(金聖昊 1986) 시의적절한 조치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네째, 農家經濟가 「F-싸이클」상의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生産活動 目標와 意思決定의 양태에 농가간 차이가 있을 것이란 점이다. 예를들어 機械化나 農外所得의 增大문제는 收縮期 이후의 高齡農家들에게는 그 의미가 거의 없을 것이며, 商業的 營農을 목표로 새로운 品種, 技術을 도입하는 일도 은퇴를 눈앞에 둔 高齡農家엔 관심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農業政策의 目標集團(target group)을 설정하고 政策需要를 예측하는데 있어 단순히 耕地規模나 所得水準에 의한 農家區分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우며, 農家가 현재 「F-싸이클」상의 어느 단계에 위치해 있느냐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즉 「F-싸이클」假說은 農家의 類型別 性格(崔洋夫外 1983, 149—164)에 따른 차별적 정책추진을 통하여 農業政策의 實效性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물론 農家經濟가 「F-싸이클」상에 위치하는 단계에 따라서 農業生産에 참여하는 意思決定과 行動樣式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더 分析되어야 할 硏究假說로 남아 있다.

結論的으로 「F-싸이클」 假說은 農家經濟의 家族經濟的 性格, 그리고 그에 따라 構造的으로 발생하고 있는 農家經濟의 動態的 資産蓄積의 한계와 小農的 상태로의 정체, 그리고 産業化로 인한 농가자녀들의 離村과 都市定着이라는 새로운 조건이 分割相續制라는 社會的 慣習과 작동하면서 일으키는 農家戶數의 전계층에서의 전체적 감소, 零細 不在地主, 賃貸借의 증대라는 일련의 農業經濟現象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F-싸이클」은 농가경제에 내재하는 구조적 메카니즘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현상들에 작용하는 하나의 중요한 說明要因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현상들의 모두가 「F-싸이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F-싸이클」이 農業經濟理論으로서 定立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實證的 硏究에 의한 검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姜熙涇, 崔仁鉉, 尹鍾周, 「韓國의 家族形態와 家族週期에 관한 硏究」, 韓國人口保健硏究院, 1982.

金聖昊, 「農地制度와 農地保全에 관한 硏究」,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4.

金聖昊, 「農地所有現況과 改善方案」, 政策討議시리즈 31,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6.

金春棟, "離農이 小農의 再生産構造에 미친 影響," 「人類學論集」, 第6輯, 서울대 人類學硏究會, 1983.

吳乃元, 金鍾琛, 崔洋夫, 「韓國農村社會經濟의 長期變化와 發展, 1985~2001」, 第2卷, 1985基準年度調査結果,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6.

崔洋夫, "韓國農業經濟에 대한 認識의 틀을 위한 하나의 試論," 木浦大學 經濟學科 특별강의 원고(미발표논문), 1984. 11.

———, "韓國農業의 構造變化와 發展方向," 「思想과 政策」, 1985, Vol. 2, No. 2.

———, "産業社會化過程에서 韓國農家의 性格變化와 課題," 「現代社會와 家族」, 第7回福祉社會심포지움論文集,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1986.

崔洋夫, 朴成在, 吳乃元, 「農家經濟의 類型과 性格分析」,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3.

崔洋夫, 吳乃元, 「韓國農村社會經濟의 長期變化와 發展, 1985~2001」, 第1卷調査硏究設計,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6.

Barnum, Howard N., Lyn Squire, *A Model of an Agricultural Household*, The World Bank, 1979.

Binswanger, Hans P., Robert E. Evenson, Cecilia A. Florencio, Benjamin N. F. White, ed., *Rural Household in Asia*, Singapore Univ. Press, 1980.

Chajanov, A. V., *The Theory of Peasant Economy*, ed. by Daniel Thorner, Basile Kerblay, and R. E. F. Smith, Homewood, Illinois, Richard D. Irwin, Inc., 1925.

Scott, James C.,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Yale Univ. Press, 1976.

Smith, Joan, Immanuel Wallerstein, Hans-Dieter Evers, ed., *Household and the World-Economy*, Sage Publications, 1984.